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울산지방검찰청

인권보호관/전문공보관 진철민 전화 052-228-4466 보도자료 2022. 12. 8.(목)

제 목

「현대판 여자 리플리?」 - 아내의 거짓말로 구속된 남편을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□ 울산지방검찰청 형사4부(부장검사 황보현희)는, 중고명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아내와 남편이 구속되어 송치된 사건에서, 검찰에서 충실히 직접수사를 한 결과 남편 피의자에 대한혐의 인정이 어려워 구속기한 내 신속하게 석방하고(10. 18.),
 - * 아내 피의자는 같은 날 구속기소
- □ 끈질기게 수사하여, 사기범인 아내 피의자가 '프랜차이즈 커피점 상속녀' 행세를 하면서 남편 피의자와 그 가족을 속여 4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실 등을 밝혀낸 후* 남편 피의자를 최종 혐의 없음 처분하였음(12. 1.)
 - * 아내 피의자의 해당 사기 범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형면제 사유 해당
- □ 경찰 수사 과정에서, 남편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여 구속된 후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충실하게 직접보완수사하여, 남편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인 사실을 밝혀내 구속취소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였음

1 피의자

○ A (남, 30세, 사기 전력 無, B와 법률혼 관계)

※ 妻: B(여, 21세, 사기 전력 有)

2 혐의사실 요지

○ A와 B는 공모하여, 2022. 5. ~ 7.경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15,950,000원 상당의 중고 명품(가방, 보석)을 편취 [사기]

3 주요 수사 경과

- '22. 9. 30. 피의자 A 및 B 구속 사건, 울산지검 송치
- 사경은 남편인 A가 "억울하다"며 일체 진술을 거부하자 "남편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"는 아내 B의 진술을 믿고 구속영장을 신청, A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영장 발부
- '22. 10. 5. A 조사
- A는 "검찰에서는 진실을 말하겠다. B가 거액의 상속녀인 줄 알았고,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했다."며 자초지종을 상세히 진술
- '22. 10. 5.~17. 직접 보완 수사
- 압수수색, 휴대폰 포렌식, 계좌추적, 관련인들 조사 등
- '22. 10. 18. A 구속취소 / B 구속 기소
- '22. 11. 휴대폰 포렌식 자료 및 계좌내역 등 분석
- '22. 12. 1. A 불기소 처분(혐의없음)

4 수사결과

- 검찰 수사로, 아내 B가 <u>프랜차이즈 커피점 가짜 상속녀인 것처럼</u> A와 그 가족을 속이고 상속 분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편취하였으며,
- 심지어 **올해 3월 세쌍둥이**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는 등 A와 그 가족을 **철저히 농락**한 사실을 규명
 - ※ 아내 B는 코로나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, B 이름이 산모로 조작된 아기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기망
- 아내 B는 당초 A가 주범이라고 진술하였다가, 검찰에서 추궁당하자 단독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으나, 최종 A와 대질조사시 "검사인 첫째 오빠와 경찰인 둘째 오빠가 상속 문제로 나를 음해하는 것이고 범행을 한 적이 없다"며 재차 진술을 번복
 - ※ B는 실제 양친 생존, 무남독녀임
- 공범 아내 B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, 검찰 직접 수사로 확보한 객관적 자료(휴대폰 문자, 피의자의 수첩, 메모, 조작된 아기 사진, 위조된 카페 사업자등록증, 계좌추적 결과 등)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A 구속취소 후 혐의없음 처분

5 의의 및 향후계획

'억울한 피의자가 생겨서는 안된다'는 원칙하에 검찰 직접수사

-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자 추사 수사 없이 구속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해, 검찰 수사로 <u>피의자가 억울하게 구속되었고, 오히려 피의자와 그</u> 가족이 4억 원 이상의 차용금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
 - ⇒ **피의자와 그 동거 친족에 대한 사기 피해 부분은** 친족상도례 규정 으로 처벌이 불가하여 입건하지 아니함

- 검찰 구속기한 내 <u>신속하게 석방</u>하여 <u>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</u>

 ※ 피의자와 피의자 모로부터 '철저히 수사를 해 주어 억울한 일도 물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,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
- 향후에도 사법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, B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 할 예정임.◎

하게 살아가겠다'는 감사편지 수령